이스라엘, 가자 공습 20여명 사망…"하마스 5명 사살"

네타냐후 총리실 "휴전 협정 위반 대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위태로운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2 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여러 지역을 공습해 20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 날 AFP 통신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을 명 백히 위반하는 공습을 여러 차례 벌여 21명이 사 망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가자지구 병원들을 인용해 이스라 엘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54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병원들에 따르면 가자시티 리말 지역에서 차 량을 겨냥한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0명 이 상이 다쳤다. 가자 중부 알아우다 병원 인근 주 택에 대한 공습으로 사망자 3명과 부상자 11명이 발생했고,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는 최소 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데이르 알발라 주택에서 도 3명이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소셜미 디어 엑스(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하마스 가 먼저 휴전 협정을 위반함에 따라 대응 공격을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한 것"이라며 "고위 하마스 테러리스트 5명을 제 거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가자 남부 구역에 테

홋카이도 사찰 도노히라 주지

"재일 조선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왜 홋카이도에 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골

발굴 작업을 하면서 과거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

홋카이도 사찰 이치조사(一乘寺)의 도노히라

요시히코 주지는 22일 도쿄 분교구에서 열린 '화

해와 평화의 숲' 출판 기념회에서 수십년간 진행

이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화해와 평화의 숲' 출간

러리스트를 보냈다면서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日승려 "조선인 유골 발굴, 과거의 어둠 응시하는 계기 돼"

일본에서 지난 8월 출간된 이 책은 도노히라

도노히라 주지는 1976년 홋카이도 북부 슈마

리나이 호수에 놀러 갔다가 인근 사찰에서 인수

자가 없는 위패 80여기를 본 것을 계기로 유골

슈마리나이 지역에서는 1935-1943년 철도·댐

공사가 진행됐고, 일본인 수천명과 조선인 3천

여명이 노동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노히

라 주지가 만났던 위패는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

주지가 그간의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발굴 관련

앞서 이스라엘군은 무장한 테러리스트가 구 호물자가 이송되는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이스 라엘 통제 지역으로 넘어와 이스라엘군에 총격 을 가했지만 군인 중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마스의 한 관리는 휴전 협정 이행 에 전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년간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 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 전에 합의했지만,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이 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하마스를 지원하는 레바논 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도 타 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해 11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군은 "베카 지역과 레바논 남부에 있 는 헤즈볼라 테러조직 소유의 발사대들과 군사 부지들을 공격했다"며 "발사대가 존재하고 이 들 지역에서 군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수행한 표적 공격으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1명을 제거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케데헌', 오스카 애니메이션상 후보 35편 포함

공식 후보작은 내년 1월 발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가 영화계 최고 권위의 오스카상 후보 자격을 갖춘 작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21일 (현지시간) 제98회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 식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 자격을 갖 춘작품총 35편의 명단을 공개했다.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데 헌은 지난 6월 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에서 극장 개봉을 소규모로 진행 해 오스카 후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오스카 시상식의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에서는 케데헌 외에 디즈니 작품 '엘리오'와 '주 토피아 2',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 날: 무한성편'과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 등 이 후보 자격을 얻었다.

미국에서도 상영된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 2' 는 후보작 가능성이 있는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노키오'로 첫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을 배출한 바 있다.

제%회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부문 공식 후보

후 10시께 시카고 도심의 시카고극장 인근에서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13-17세 연령대의 10대 7

명이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

두번째 총격은 약 1시간 뒤 첫 번째 사건 발생

지점에서 남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지점에

서 일어났다. 이 총격으로 한 명이 다치고, 다른

경찰의 해당 사건 발표 시점까지 체포된 용의

14세 한 명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美시카고서 10대 집단난동 중 총격

지난 21일(현지시간) 밤미국시카고시도심에 서 청소년들이 집단난동을 벌인 가운데 일련의 고 있다. 총격사건으로8명이다치고1명이사망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10시께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 했다"며 이 사건으로 9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총격은 21일 오 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2022년작 '기예르모 델 토로의 피

작은 내년 1월22일 발표된다.

한 유골 발굴 작업을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 것이었다.

최초 슈퍼맨 코믹스 단행본 경매서 134억원 낙찰…만화책 최고가

발굴을 결심했다.

활동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슈퍼맨' 코믹스 초판본이 역대 만화책 최고 가 경매 기록을 세웠다.

2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1939년 출간된 '슈퍼맨 #1'(사진)이 경매에서 912만달러 (약 134억원)에 낙찰됐다고 경매사 헤리티지옥

만화가 제리 시걸, 조 슈스터가 함께 창작한

슈퍼맨은 1938년 탄생했다. 만화 잡지 격인 '액션 코믹스'의 수록 작에서 처음 등장한다.

초의 단행본이다.

골을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도노히라 주지는 "유골 발굴은 공동의 발걸 음이었다"면서 "가해자인 일본인과 피해자인

그는 이후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 발굴 한일

공동 워크숍'을 만들어 유골 발굴 작업을 추진

했고 강제로 동원돼 노동하다 사망한 조선인 유

한국인이 함께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에서 "슈마리나이에서는 식민지 지배 와 전쟁이 가져온 인간의 비인간화가 이어졌 다"며 "유골 발굴 작업이 과거의 어둠을 응시하 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션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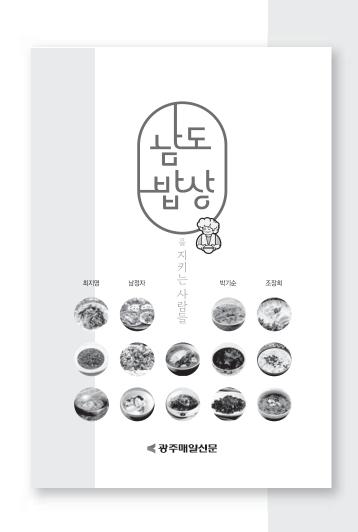
이번에 낙찰된 판본은 슈퍼

액션 코믹스의 출판사 '내셔널얼라이드 출 했다.

판'이 '디텍티브 코믹스'(현 DC)에 합병된 뒤 슈퍼맨을 제목으로 처음 찍어낸 초판본 50만부 중 1권이라는 점에서도 희소성을 더한다.

출간 당시의 정가는 10센트였다. 현재 화폐 가 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 치로 환산하면 2달러(약 3천원) 정도다.

> 거의 완벽한 보관상태가 낙찰가 상승에 기여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